

자랑스런 현대차의 위상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북경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중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방중 3일째인 4월24일 북경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그 위상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지사는 북경시 순의구 임하공



업개발구에 위치한 총 20만평 규모, 직원 4천200여명으로 운영되는 북경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지사와 경기도 대표단은 회사 현황을 브리핑 받고 공장 시찰후 현대자동차의 중국내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중국 현지에서 세계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는 위상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북경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북경기차투자유한공사가 각 50%씩 투자해 설립한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로 설립 4년 반만에 현지 택시 보급률 3분의 2를 점유한데 이어 올해는 31만대 생산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폭스바겐 GM에 이어 현지에서 세 번째 판매량을 기록중이며, 오는 2010년엔 현대 기아차 포함 100만대 생산판매를 목표로 세웠다.

경기도 대표단 일행은 1공장 생

산라인과 조립장, 그리고 2공장 건 설현장을 시찰하며 국내외 현대차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90%의 자동화 시스템을 현장방문했다.

특히 북경 공장에서는 한 라인에서 여러대의 차종을 한꺼번에 선택 적으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타 외국 기업의 자동차 장이 원하는 차종을 신속히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단은 올해 4월 기공식을 가진 제2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성장세를 이어가는 현대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지사는 노재만 부사장 등 관계 자들에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며 "국내 위상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열심히 뛰여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드린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체육회 이강석 선수에게 격려금 전달

지역사회 홍보활동에 대한 노고 격려차원에서

의정부시체육회는 2007년 세계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선수권 대회 남자 500m 경기에서 34초 25라는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해 우리 빙상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운 이강석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정부시체육회 격려금 전달은 이강석 선수가 올해 1월1일 의정부시청립 입단 이후 제6회 장춘동계아시안게임 및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세계 빙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정부시 홍보대사,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의 명예홍보대사, 경기도 홍보대사 등 각종 홍보대사로서 의정부시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에 대한 그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각종 홍보대사 위촉 이후 현재 이강석 선수는 시정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타 CF모델,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의정부시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이 선수에게 향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에 꾸준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제2교육청 부지 후보 1위 광역행정타운 가속도

위치선정심의위 후보지 순위발표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順



의정부시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이전 부지선정을 위한 위치선정 심의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가 부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뒤 19일 후보지 4곳에

대한 실사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실시했다.

실사 후 의정부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심의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회의를 갖고 1순위 의정부시, 2순위 양주시, 3순위 고양시, 4순위 포천시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심의위에서 의정부시는 북부지역 수부도시로서 지역적 중심임을 인

정받아 1순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교통망 확보 등 개발불이 한창인 점을 인정받았으며, 고양시의 경우 교육 수요자 수가 경기북부지역의 30%에 달하는 등 지역 최대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1순위로 위치 선정된 의정부시의

경우 금오동 431-1번지 일원으로 19필지 50,000㎡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미군기지인 캠프 예세온으로 2006년 9월 30일 폐쇄되어 2008년 반환예정인 지역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전철1호선 등을 이용한 타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다음달 경전철사업을 착공하는 등 교통이 편리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음달 부지 선정에 관한 경기도 교육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의정부가 교육 중심도시로 거듭날 뿐 아니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전철1호선과 다음달 착공하는 경전철사업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며 "제2교육청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인근 광역행정타운 내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경기도제2소방본부, 통계청, 소방서 등 11개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의 수부(首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정속을 강요하지 않는 도서관

의정부어린이도서관, 5월4일 開館

의정부는 다음달 4일 오후2시 의정부어린이도서관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식전행사로 의정부소년소녀합창단과 의정부 유스퀘어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고,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이어서 현관 제막식, 테이프 커팅, 3D입체영화 상영, 저글링 공연, 택견시연, 마술 쇼, B-boy 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제노포럼 특강

중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월24일 산동성 재남의 산동호텔에서 열린 제노포럼 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산동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녹화방송 될 예정이다.

또한 야외에서는 솜사탕 만들기, 꼬마요리사, 숨은 마법사 찾기, 풍선아트, 구슬점토, 페이스페인팅 등이 열리고, 실내에서는 마법주연 배우기, 동화구연, 어린이 요가체험, 캐리커 통화읽기, 캐리커와 사진 촬영 후 기념품 만들기 등 여러 가지의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경기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신축한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을 취약한 어린이 전문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어린이들에게 세계와 미래를 열어 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자료를 갖추고 독서공간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도전정신을 책 속에서 찾도록 이끌어 주며 21세기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정속을 강요하지 않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다.

호원동 319-25번지에 2005년 12월 착공해 올해 준공할 어린이도서관은 2,185㎡ 연면적으로 지하층 지상3층의 규모로 500석의 좌석과 5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유아 열람실, 저학년·고학년 열람실, 자료실, 어린이영화관 등 어린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소재의 인테리어로 어린이 문화의 중심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 수상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시설로는 유일하게 선정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공연장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4월20일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7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아시아경제신문화리서치의 엄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Mouvie& Drama', 'Music Festival Play Fun&Joy' 등 5개 분야에서 세발자전거 필름,



함평나비축제, 뮤직팩토리, 의정부 예술의전당 등 20개 기업 및 단체를 최종 수상자로 시상했다.

글로벌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꾀하고 한류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아시아 경제 문화리서치와 스포츠한국에서 제정했다.

공연시설부문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의정부예술의전당 선정이유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확고한 문화생 산자로서의 사명으로서 국민의 미래 정서 가치함양과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2001년 4월 개관한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이제 개관 6년째를 맞고 있으며 연간 150건에 300여회의 공연과 연평균 25만명이 찾는 문화공간으로서 개관이후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문화공간으로 선정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효자중학교 이부순 교장 경로효친사상 앞장

아파트 거주 어르신 150여명 초청 점심대접

의정부시 신곡2동 소재 효자중학교 이부순 교장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초청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학교 현황을 설명,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공9단지를 비롯하여 5개 단지 아파트 어르신 150여명을 초청해 지난달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 교장은 어르신들께 학교 현황을 설명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변하는 사회 환경속에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성 교육육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의 공명도 효자로 부모님의 참 뜻을 헤아려 건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참된 자아와 지혜를 배우고 익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이념으로 지도한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외국인 고용사업주 안전보건연찬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4월19일 의정부시 삼천리웨딩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등 31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 안전보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의 2007년 산업안전보건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에 이어 전 한국기술대학교 문형남 총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또 중국선교교회 김요셉 목사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례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안전보건 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시키고 아울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가자! 우리들의 세상속으로!

의정부시, 제85회 어린이날 다채로운 행사 계획

의정부시는 5월 청소년의 달 및 제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린이 사랑의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해 의정부어린이대축제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다음달 5일 오후 1시30분 시청앞 광장의 광장에서 1천여명의 어린이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어린이 포함 등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평화의광장 및 청소년회관에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공연프로그램은 군악대퍼레이드, 매직쇼, 인형극 등이 열리고, 참여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 만들기, 곤충 목걸이 만들기, 탈 목걸이 만들기, 전통만들기, 레크레이션 한바탕, 소방안전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상설프로그램으로 놀이동산(아이바우스), 리얼포토(열쇠고리정), 배에로 매직풍선증정, 캐

리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 게임존(전통, 전래놀이)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당일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정보문화센터 등에 대해 어린이들에게만 무료로 개방한다.

믿음신용협동조합에서도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평화의광장에서 건강정보 제공과 미니농구, 축구, 골프 등을 하고, 동화읽는 어른 모임에서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평화의광장에서 책 읽어주기, 책 전시, 거미줄만들기, 책갈피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②

통영의 옛 교방청에서 전승되는 춤

승전무는 1968년12월21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1986년11월1일 승전무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한정자(66·고부, 96.3.11), 엄옥자(64·검무, 96.3.11) 보유자와 정미애(51·무용, 88.8.1), 김진규(70·약사(피리),96.5.1), 유덕관(53·약사(대금),2001.9.6), 장영미(51·승전무,2001.9.6), 김정희(51·승전무,2001.9.6) 조교에 의해 전승, 보존되고 있다.

승전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통영의 옛 교방청에서 전승되는 춤으로 전승 경로와 계보가 비교적 정확하고 공중무용의 성격과 품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단체 승전무보존회는 경남 통영시 북산동 83-26번지 관우상가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승전무는 경남 통영(충무)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으로 궁중에서는 '무고(북춤)'라 하여 기녀와 춤을 추는 사내아이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충무공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는 축하의 의미로 추게 하였다. 본래 통영지방의 잔치에서 행하던 무고, 검무(칼춤) 등의 모든 춤이 군대 가 있던 곳에서 추던 것이라는 뜻으로 승전무라 하였는데, 이 가운데 1968년에 '무고'만이 승

승전무



전무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에 검무를 추가했다.

승전무는 활옷을 입고 양손에는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북을 울리며 청(靑)을 하고 춤을 춘다. 흘러졌다 모여드는 형태는 삼진삼퇴를 뜻하며 전체가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연상회상' 가운데 삼현도드리와 타령을 반주음악으로 쓰며, 춤가락은 순박하면서 예스럽고 독특한 향토적 특색을 갖고 있다. 검무의 의상은 흥치마에 흰저고리, 흑색 자, 전립, 흉피, 색동한삼 등을 갖추며 무구로 1쌍의 칼을 든다.

승전무는 의상이나 사용되는 도구, 춤의 내용 등이 궁중무고와 흡사한 춤으로, 우아한 춤사위와 가락 그리고 치밀한 짜임새는 예술적 가치가 높고 정품성을 담고 있는 우수한 춤이다.



문의: 의정부 사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